

“상호시장 제도 폐지해야” 건설산업 정상화 촉구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정기총회서 결의대회 개최... 탄원서 제출 퍼포먼스 진행 · 국토부에 강력 요구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가 건설산업 정상화와 전문건설업 생존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는 지난 19일 전주 라한호텔 은고을홀에서 내외빈과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1회 정기총회'를 열고, 건설업 상호시장 제도로 인해 전문건설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종합건설업체들이 전문건설 시장에 대거 참여해 영세 전문업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근홍 회장은 “건설경기 침체와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전문건설인들은 현장의 최일선에서 성실 사공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지난 19일 전주 라한호텔 은고을홀에서 내외빈과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1회 정기총회'를 열고, 건설업 상호시장 제도로 인해 전문건설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으로 건설산업을 지탱해 왔다”며 “전문공사는 전문업체가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을 기점으로 전문건설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설산업 생산체계 정

상화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회원들은 이날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제출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건설업 상호시장 제도 폐지와 제도 개선을 국토

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로 지역 전문업체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불법 하도급이 늘어나면서 공사 품질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일 업종 하도급 허용 폐지와 전문·종합공사 구분 원칙 회복도 함께 요구했다.

현재 전국 7만여 전문건설사업자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알리고 생존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전북 전문건설업계는 “공정한 경쟁 질서 회복이 지역 건설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오상근기자

대기업 · 중소기업 ‘모두의 성장’ 박차

정부, 상생 성장전략 발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수출과 투자 성과를 대기업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까지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중동·아시아 지역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과 정부의 공동 노력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성과가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존 상생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대기업 중심의 수출·수출 성과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높였다.

또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는 상생금융을 총 1조7천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현대·기아차, 포스코 등 대기업과 은행, 보증기관이 함께 참여해 협력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다. 대규모 수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새로 만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도 강화된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정부가 확보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대기업과 협력해 스마트공장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을 빼앗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기술탈취가 확인될 경우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 기준도 현실화한다. 증거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상생 협력 대상은 전통 제조업을 넘어 온라인 플랫폼, 금융, 방위산업 분야까지 확대된다.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선 엄정 대응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방산 분야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스타트업 참여를 확대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오상근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위드 토크데이' 개최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지난 20일 전북혁신도시 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2026년 위드(With) 토크데이'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지난 20일 '2026년 위드(With) 토크데이'를 열었다.

주년을 맞아 지역 출연기관 임직원들이 모여 전북의 미래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전북테크노파크를 비롯해 전북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진흥원 등 도내 7개 출연기관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방위산업과 반도체산업 등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전략을 공유하고, 기업 지원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격려하는 자리로, 빠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정기예금 특별 이벤트

전북은행이 최고 연 3.1%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오는 3월 31일까지 'JB 1·2·3 정기예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기본금리 연 2.60%에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0.5%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3.1%까지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최근 1년간 전북은행 정기예금 가입 이력이 없는 첫 거래 고객에게 0.4%,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면 0.1%가 추가된다.

국산 콩 활용 식물성 단백질 개발

농촌진흥청, 수입 의존 핵심 원료 대체 '글루텐 프리' 기술 확보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르면서 고기 대신 먹을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 식품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식품의 핵심 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다.

이런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국산 콩을 활용한 새로운 식물성 단백질 제조 기술을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산 콩 품종인 '내일콩'을 이용해 글루텐을 넣지 않은 식물성단백을 만드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식물성단백은 식물성 단백질에 고기처럼 결이 살아 있는 식감을 더한 대체 식품 원료다.

기존 식물성단백은 대부분 수입 콩 원료에 글루텐을 섞어 만들었다. 반면 이번 기술은 국산 탈지대두와 쌀가루만 사용해 글루텐 없이도 고기 같은 조직감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수분 함량



이 높은 '고수분 식물성단백' 형태로 만들어 별도의 물에 불리는 과정 없이 바로 조리 가능하다.

연구진은 배합 비율과 압출 성형 조건을 최적화해 씹는 맛과 탄력이 뛰어난 제품을 개발했으며, 해당 기술은 지난해 특허로 출원됐다.

또한 협업 연구 농장과 대량 생산 시스템을 통해 실제 생산 가능성도 검증했다. 그 결과 경도와 씹힘성, 탄력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이를 활용한 탠더, 양념 볶음, 건조조 등 대체식품 시제품 3종도 선보였다.

/오상근 기자

전국 139개 시·군 농촌공간계획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농식품부-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2026년 업무보고회'를 열고, 전국 139개 시·군의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활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촌공간계획은 기존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획일적 개발에서 벗어나, 시·군 단위가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이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산업 집적화, 경관 보호 등 지역 맞춤형 발전을 도모한다.

현재 전국 139개 시·군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해 농촌마을보호, 농촌산

업, 축산, 융복합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황식 계획 수립과, 주거환경 개선과 산업 육성 등 가시적 성과 창출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중앙지원기관은 '전담지원반'을 꾸려 각 지역의 계획 수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적인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농촌공간계획이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와 연계돼 농촌 일터, 삶터, 쉼터 구현에 기여하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오상근 기자

'전북형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전북형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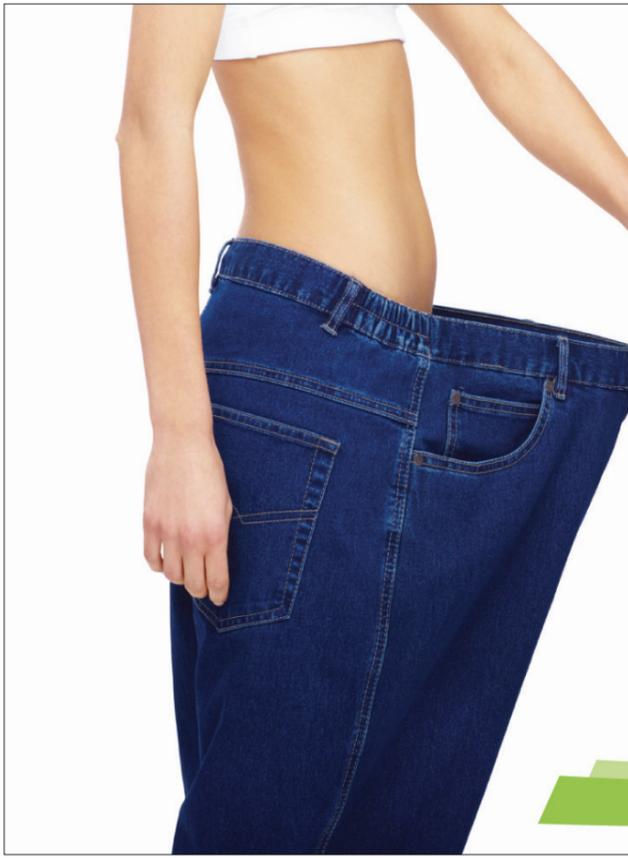
'전북형 수출바우처'는 기업이 수출 규모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 쓸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2,55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1,525만 달러 상당과 1,354만 달러 계약 성과를 달성하는

등 도내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원 대상은 전북 소재 제조·유통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수출 실적에 따라 수출 초보 기업은 최대 1,300만 원, 수출 주력 기업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30일 오후 5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